

격 월 간 발 행
2021.12/2022.1
vol.286

사람 세상



3월부터 고양시 지축종합복지관 운영

www.hanbeot.org

“한벗은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도
굳은 마음으로 기부해주신 회원들께
더없는 감사와 경외를 드립니다.

그간의 멈춤과 참음이 돌운
깊은 눈길과 연민으로
새해의 나날을
보람으로 꾸미소서.

2022년 새해, 임직원 모두 고개 숙여

올해부터 「지축종합복지관」 운영



건물 1층에 복지관 입주

한빛이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한 ‘지축종합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구파발역에서 차로 7분 거리(지축역 8분)에 위치한 ‘지축종합복지관’은 임대주택 전용 단지로, 국민임대주택 750세대, 영구임대주택 632세대 등 총 1,382세대, 약 3,800여 명의 주민이 입주하게 됩니다.

한빛이 복지관 운영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이곳에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합니다.



지도

3월 복지관 개관



관장 : 송미령(68년생)
복지관 관장경력 6년

새로 건립된 임대주택단지는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이며 올 2월까지 주민 입주가 완료되면 3월부터 복지관을 개관해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복지관 내부공사와 직원채용을 하고 있는 중이며, 운영을 총괄할 관장은 복지관 운영 경험이 많은 분을 모셨습니다.

수탁기간은 5년으로, 5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연장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가 지원하는 연간 예산은 11 억원으로 전액 복지관 운영에 지출하게 됩니다.

재단은 직원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1년 한뼉 사업보고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업축소가 불가피했습니다. 대신 근육을 키운 한 해였습니다.

구 분	사 업 내 용
장애인단기거주 시설 (한뼉동지)	작년 1년 내내 이용장애인 10명이 시설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3교대 근무하는 직원들 고통이 컸습니다. 다행히 하반기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직원 4명을 추가 지원받게 되어 격무를 덜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작년에 하루 3~4명만 오갈 수 있었습니다. 외부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해 이용장애인에겐 미안하고, 집에서 돌봐야 하는 가족의 계속되는 노고를 안타까워하기만 했습니다.
장애인여행지원	장애인관광버스가 1년 내내 주차장에 멈춰있습니다. 특히 생애 첫 해외여행을 기다리는 장애인이 많은데, 올해는 재개되기를.
보조기기 서비스	휠체어 대여 : 국내 13건, 내한 외국장애인 4건. 총 17건. 작년의 1/4. 보조기기 상담 : 출장 4명, 전화상담 9명, 무상지원 6명 총 19명
복지관 수탁	작년 11월 22일, 고양시 지축종합복지관 운영 수탁계약
미얀마 지원	유모차 기증 : 작년 2월 미얀마 쿠데타 발발 직전 295대 선적. 5월부터 미얀마행 선박마저 끊어져 수거와 기증 중단.
	어린이 잡지 기증 : 다행히 쿠데타 발발에도 어린이잡지 기증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지학교가 1년 내내 휴교상태여서 어린이들이 더없이 반가워했습니다. 월 1,000원, 연 12,000원. 163개소
	놀이기구 기증 : 미얀마 쿠데타로 외국인 방문이 금지되어 보육원 기증 중단
	휠체어 기증 : 미얀마 행 선박 부재로 중단
장애인 홍보	중증장애인 삶의 모습을 소개한 ‘공주님의 치마’ 간행, 후원회원에게 기증
노숙인 마스크나눔	회원 4명이 월 2회, 노숙인에게 마스크 총 40,000매 기증
미얀마 쿠데타 희생자 돕기	쿠데타 희생자 가족과 부상 어린이, 급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원에 기부하였습니다. 기부금액 6,710,000원, 69가구, 보육원 2곳, 3개 단체 지원

2021년 한빛 재정보고

코로나19에도 기부금 늘어나 불행에 대한 연민 깊어져



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기부금이 줄었습니다만, 감염자와 피해자가 크게 늘어난 작년 하반기부터 놀랍게도 기부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 재난 속에서도 어려움을 함께 겪겠다는 성찰과 아름다운 공동체의식의 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별한 정성 보내주신 후원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내 대표적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20년도에 비해 개인과 기업 모두 기부금이 13%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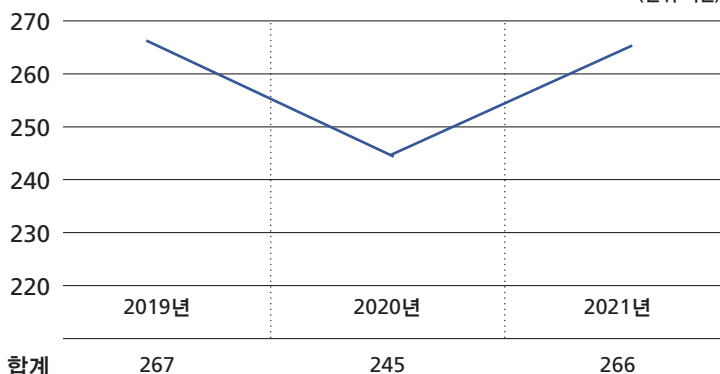
최근 3년간의 기부금 추이(한빛)

단위: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20년)	비고
재단본부	129,022,608	104,825,195	128,303,018	▲ 23,477,823	특별기부1억 제외 미안마의연금 포함
휠체어날개달기	41,074,345	46,740,000	46,110,000	▼ 630,000	
미안마방정환	16,314,000	14,136,400	13,924,130	▼ 212,270	
한빛동지	75,202,703	70,681,302	70,590,346	▼ 90,956	
주간보호실	6,072,000	9,605,000	7,300,000	▼ 2,305,000	
계	267,685,656	245,987,897	266,227,494	▲20,239,597	

후원금 추이(3년)

(단위:백만)



휠체어날개달기 기금에서 미안마 지부의 현지직원 인건비와 유모차 선적비, 의연금전달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기부금 영수증
보내드립니다.
문의 : 02)393-0661



주간보호실 소식

현후야, 보고 싶을 거야!

5년 동안 함께 지낸 주간보호실의 미소 천사이자 울보인 박현후 군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의 생활시설로 가게 되었답니다. 우리 주간보호실에 처음 왔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5년이나 되었네요. 2016년 08월, 무더위가 한창일 때였지요.

‘내가 죽기라도 하면 어쩌나?’

현후 군은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뇌성과 지적장애 중복입니다. 이처럼 중증의 자녀를 둔 모든 부모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입원할 수 없습니다. 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격리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깊어집니다. ‘내가 죽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지요.

허울 좋은 ‘지역사회 돌봄’

지금은 낮 시간에 주간보호실에 맡기고 저녁에는 집에서 돌볼 수 있지만 이마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쩌겠습니까? 때문에 부모들은 노후 대비로 자녀를 맡길 생활시설을 수소문하지만 시설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중복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실조차

부족한 지경이니까요.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정책은 우리나라에선 아직 먼 훗날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미소 천사 현후 군

결국 수소문 끝에 할 수 없이 완주의 시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날마다 얼굴을 대할 수 있지만 엄마는 그 먼 곳까지 날마다 갈 수는 없습니다. 현후 군의 미소는 참으로 순박합니다. 큰소리로 자주 울기도 하지만,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얼굴은 세상의 온갖 걱정을 잊게 하는, 아기 같은 표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볼 수 없게 되었네요. ‘너무 멀어 어쩌지요?’ 어머니는 벌써 눈물부터 흘립니다.

근로장학생

• 숙명여자대학교 - 김수빈, 김주원 양 고맙습니다.

기부물품 고맙습니다

• 푸드뱅크 - 빵 60개 • 국민연금공단 - 달력 1박스
• 사랑의 열매 - 김치 8kg 18박스

한빛등지 소식

카이스트 졸업한 수재, 김영호 씨



모자의 비극

김영호 씨는 식구 중 나이가 제일 많은 분으로 2018년, 모친이 모시고 왔다. 카이스트 항공대학원을 졸업한 유망한 과학자였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되었다. 고령의 어머니가 6개월간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끝에 간신히 의식이 돌아왔지만 언어와 보행장애가 남았고 자신의 이름만 간신히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어머니마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모자가 영상으로 만나면 아들은 이 말만 되풀이한다. 하기 사 이 말 외에 무슨 말이 있겠는가! 기력이 쇠잔해진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듣고만 계신다. 이를 지켜보는 직원들 가슴이 무너진다. 그래도 영호 씨는 코로나가 수그러들면 어머니를 보러 가겠다며 손꼽아 기다린다. ‘어머님 건강하게 지내셔야 해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기부해 주신 후원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0월 17일 ~ 12월 16일 ()안은 횟수)

강순기 1만(2) 강신순 2만(2) 강인수 1만(2) 강훈선 5천(2) 고유미 1만(2)
곽봉현 1만(2) 구혜림 1만(1) 권미정 3만(2) 권영수 10만(2)
공영순 2만(2) 길 현 5천(2) 김간판 5만(2) 김명순 1만(2) 김미진 2만(2)
김선헌 1만(2) 김여은 1만(2) 김영진 1만(1) 김용락 5천(2) 김윤근 1만(2)
김윤희 1만(1) 김인곤 1만(2) 김인숙 1만(2) 김태일 1만(2) 김한서 5만(2)
김호영 1만(2) 마은영 5천(2) 문정희 2만(2) 박성준 1만(2) 박지원 1만(1)
박찬울 1만(2) 박푸름 1만(2) 박해진 1만(2) 박희수 3만(2) 백승열 4만(2)
서소녀 1만(2) 서인숙 1만(2) 성다혜 1만(2) 송옥진 1만(2) 송은숙 1만(2)
오광진 1만(2) 오성진 1만(2) 유정옥 5천(2) 유정자 10만(2)
윤덕수 2만(1) 윤일심 3만(2) 윤정애 1만(2) 윤정현 3만(1) 윤태훈 1만(2)
이경진 1만(2) 이대환 1만(2) 이병수 2만(2) 이상수A 1만(2)
이상수B 1만(2) 이옥순 1만(2) 이윤경진보 5천(2) 이은혜 2만(1)
이재호 1만(2) 이지영 1만(2) 이현주 5천(2) 이태균 5만(2) 이태환 1만(2)
이혜란 5천(2) 임경숙 5천(2) 임영택 1만(2) 임재창 3만(2) 장영숙 1만(2)
장진섭 1만(2) 장호근 1만(2) 정완교 1만(2) 제갈윤 1만(2) 조기택 2만(2)
조길용 3만(2) 조민진 2만(1) 조성윤 5만(2) 조은미 5천(1) 조은이 2만(2)
조은주 10만(2) (주)삼솔무역 5만(2) 지현정 2만(2) 진 권 1만(2)

진주형 2만(1) 차민우 1만(2) 채순옥 2만(2) 천병수 2만(2)
최경희 1만(2) 최미정 1만(2) 최선영 1만(2) 최순우 1만(2)
추지훈 1만(2) 한지행 1만(2) 한초덕 2만(2) 홍영미 10만(2)
황민규 2만(2) 황정현 3만(2) 서강어린이집 597,000원
열림교회 10만(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만(1)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물 고맙습니다.

- 김영호(이용자) 굴 / 박주용(이용자) 식재료
- 부흥사(후원자) 식재료 / 여일구(후원자) 배추
- 이은혜(봉사자) 치킨 / 익명(후원자) 바나나 등 / 전인교회 과자
- 진권(이용자) 식재료 / 추지훈(후원자) 도넛 / 홍기탁(후원자) 쌀
- 롯데카드 쌀 / 마포자원봉사센터 머그잔
- 마포사회복지시설협의회 김치 등 / 성산주민센터1동 쌀
- 열림교회 쌀

시민의식의 성장-정기후원금



1986년 10월, 독일 뮌스터교회에서 온 한 통의 편지. “앞으로 5년간 매월 5만원을 보냅니다. 4년 후 계속 지속여부를 논의합니다. 이후 중단될 수도 있으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분을 금치 못했다. 당시 5만원은 컸다. 한뼉은 이를 씨앗으로 「한뼉문고」를 간행, 매월 2,000명의 공장근로자에게 보내게 되었다. 정기기부가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 냈을 이때 처음 알았다. 뮌스터교회는 창립회원인 장우형 선생이 현지 유학생을 모아 설립한 실로 가난한 교회였다.

정기후원금 제도의 도입

한뼉이 정기후원제도를 처음 도입한 때는 ‘장애인콜택시’를 설립(1993년)하면서였다. 이전까지는 의례 1회성이었다. 정기기부 약속은 쉽지 않다. 단체에 대한 신뢰는 물론 자신의 정례지출을 줄이는 결심을 해야 한다. 더구나 당시엔 자동이체제도가 없어 매월 은행에서 지로용지로 보내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시민의식의 성장

정기후원제도의 정착은 사업 지속을 견인할 관건이었다. 설립은 1회적인 특별기부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지속은 다른 힘이 이끌어야 한다. 장애인콜택시 초기 3년간 총기부자 648명 중 64%는 1회 기부였지만, 36%는 정기후원을 약속했다. 시민의식의 괄목한 성장이었다. 과연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가 이어받기까지 이들에 의해 10년간 지속되었다(총 13년).

15회 이상 기부회원 명단

(1993년 6월~1996년 6월/3년)

이준아(28회) 김범수(27회) 이명숙(26회) 황화자(26회)
김양희(25회) 이형재(25회) 박지숙(24회) 박한묵(22회)
양해수(22회) 야마구치(21회) 차재혁(21회)
최동혁(20회) 강만희(19회) 안미정(18회) 박옥선(17회)
장상렬(17회) 등불공동체 박정호 박현성 신혜란 조재선
해군본부교회 환돌교회(이상 16회) 김영호 박양혜
박정호 신혜성 최향숙(이상 15회)

9회~14회 기부회원

공석용 김신배 김진숙 김혜진 김홍석 박문훈 박봉선
박봉옥 박봉희 박상은 박종성 삼성중공업 신복순
신아원 여성두레 오주영 유경손 유광주 유금종
육종삼 이경화 이상민 이영희 이인국 이학식 임미경
정호진 정환복 조미경 차선화 채진석 최정희 최혜영
태동산업기계 허만식 황경임

※3년간 개인별 기부횟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아이들이 우는 소리



군인트럭 총구가 눈을 부라리며 지나간다
타당 타당 타당, 조준사격 소리
또 누군가 피를 튀기며 쓰러졌다
타 타 타 타, 이어지는 기관총 난사
또다시 음산한 정적(靜寂)
사람이 죽어가도 아무도 곁에 못 간다
이때, 어디선가
으앙~ 하며 울어재끼는 아이 울음소리



불길에 휩싸인 집을 바라보던 아이가
엄마 손에 나뭇채여 산으로 끌려간다
엄마가 말했다
“이제 우리 집은 없다”
숲 너머 저녁놀이 비끼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하느님이 우시는 소리!

지난 한 해, 쿠데타 희생가구에 의연금을 보내주신 분께 합장 올립니다

강영숙 고명지 구자명(2) 김경미 김광숙(2) 김민진(2) 김순정 김정묘 김준범 김중호 류호성 박정희
배경미 백진양(2) 서판임 송유자 심아진 심혜숙 안인숙 양 숙 예옥석 오승선 이경자 이관희 이광범
이민희 이영숙 이명숙 이풍연(2) 이현나 이형재 인보광 장혜경(2) 정금숙(3) 정수진 조재선 최재화
최정임(미국 킬린) 최준수 한영주(2) 한벗재단 휠체어날개달기(42명) ()안은 횡수

총 6,710,000원. 미얀마 중부와 북서부 7개 마을 69가구, 보육원 2곳, 3개 단체 전달

미얀마 쿠데타 희생자 가구 돕기 계좌: 국민은행 763601-04-155077 한벗재단

재단소식

기획본부장에 유시영 이사 모셔



재단 기획본부장에 유시영 이사

재단 이사회는 지난 12월초 외부 추천이사로 영입한 유시영 이사를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정년퇴임하신 이사님은 지난 2000년대 한벗의 법인설립과 한벗동지, 주간보호실, 보조공학센터 설립을 도와주시며 한벗과 깊은 인연을 가진 분입니다.

앞으로 우리재단의 성장을 이끌어주시기 기대합니다.



신임 최우람 사무국장

3개월간의 견습을 마치고 11월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기업에서만 근무했으나 새로운 분야인 사회복지 분야에서 진력하기로 하였습니다. '77년생



의류 기증

쿠테타가 진정 되는대로 부인과 함께 미얀마에서 봉사활동을 펴기로 한 김옥주 사장이 반바지 및 티셔츠, 휴리닝 등 450벌을 기증해주셨습니다. 현재 미얀마행 선박이 없어 보내지 못하고 있지만 배편이 마련 되는대로 선적할 예정입니다.



이미경 님 수전동휠체어 기증

본인이 사용하던 고가의 일본제 수전동휠체어를 기증해주셨습니다. 장애인 해외여행 시 요긴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후원계좌

- 한벗재단 국민 763601-04-002564
- 휠체어날개달기 국민 763601-04-095562
- 한벗동지 국민 577301-01-127870
- 한벗주간보호센터 국민 763601-04-078400
- 방정환기금 국민 640601-04-006175

한뼉에 오신 산타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12월, 고맙게도 산타할아버지가 큰 보따리를 매고 우리 한뼉에 오셨습니다.

우정 들려주신 깊은 마음과 정성, 무엇보다 저희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개 숙여 사명을 다짐합니다.



중고 휠체어 기증해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중고휠체어를 기증해주세요. 빈곤국 장애인에게 보냅니다.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화주시면 가지러 갑니다.

02)393-0661

산타 할아버지의 보따리(가나다 순)



- 국기호 감리사님 100만원
- (주)만도차이나홀딩스 직원 일동 660만원(날개달기).
- 북텍사스한인여성회(회장 곽영혜) \$1,000
- 성원용 교수님(서울대 전기공학과) 50만원
- 신반포감리교회(홍정호 목사님) 50만원
- 이경희 님 20만원(이관희 원장 소개)
- 이명자 님(전 이동봉사대원) 10만원
- 이형재 님(회원) 20만원
- 작년 2월 별세한 위재웅 님(한뼉창립회원) 유족 100만원
- 최재명 님(전 경산복지재단 이사장) 60만원
- 한국산업은행 200만원, 익명 10만원
- 「공주님의 치마」를 읽고 특별기부
 - 오정선(간호사) 100만원 남기명(회원) 50만원
 - (회원가입해 주신 분) 학선 테라서, 유 베로니카(이상 미국교민)
- 미안마의연금 : 구자명 10만원 김광숙 10만원
- 김준범 18만원. 이관희 20만 장혜경 5만원
- 방정환기금 특별기부
 - 최재화 님(경산복지재단 이사장) 60만원
-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 양옥연, 이삼선(이상 이관희 원장 소개)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코로나의 멈춤으로 굳어진 땅 속에서 새싹이 솟아나는
봄은 옵니다.

21년 10월~11월 30일 입금분. ()안은 개월 수

※ 11월말까지 인출되지 않는 경우 다음 소식지에 게재합니다.

〈한뼉재단〉

문숙자(2) **이상 1,000원**
김계순(덕양/2), 김미란(2) **이상 2,000원**
강희춘(2), 손미연(2) **이상 3,000원**

강난규(2)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얀/장은혜(2) 공충식(2) 객안나(2)
곽환상(2) 구자균(2) 구재순(2) 김관중(2)
김대현(2) 김동수(1) 김명문(2) 김미영(2)
김선희(김포/1) 김수영(2) 김시홍(2) 김영희(2)
김유경(2) 김준혁(2) 김태호(2) 김향미(2)
김혜숙(목동/2) 김혜정(2) 나호연(2) 노수진(2)
도현정(2) 류소연(2) 문혜원(2) 박범진(2)
박병건(2) 박상준(2) 박용훈(2) 박정민(2)
배재수(2) 서동욱(2) 설대호(2) 신성아(2)
신인아(2) 신혜경(2) 엄민애(2) 오형균(2)
유경희(당산/2) 유해국(2) 이동하/한귀남(2)
이란희(2) 이상희(2) 이승영(2) 이승희(2)
이양훈(2) 이종수(2) 이종태(2) 이지영(2)
이행남(2) 이호열(2) 임정리(2) 장수관(2)
정길순/박지양(2) 정해숙(2) 조규영(2)
조명순(2) 주우익(2) 최수진(2) 최원진(2)
하성남(1) 한진숙(2) 현승혜(2) 홍영일(2)
홍혜경(2)

이상 5,000원

(주)상정무역(2) (주)영화의료기(2) 강석보(2)
강인호(2) 강희정(2) 구다원(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2)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김경민(2)
김경석(2) 김교일(2) 김기석(2) 김남중(2)
김동진(1) 김동현(2) 김려원(2) 김민수(2)
김범수(2) 김보경(2) 김보금(2) 김상순(2)
김석미(2) 김수리(2) 김영지(2) 김옥남(2)
김완섭(2) 김용남(송파/2) 김용남(2) 김용선(2)
김윤대(2) 김윤성(1) 김윤숙(2) 김은숙(2)
김은자(1) 김인숙(2) 김재환(2)

김종용/전정원(1) 김준형(2) 김진수(2)
김진원(2) 김철희(2) 김학철(2) 김한영(2)
김향(2) 김현준(2) 김형배(2) 김형식(2)
김화중(2) 나호진(2) 노현욱(2) 류희수(2)
민경양(2) 민운기(2) 민준홍(2) 박갑수(2)
박경남(2) 박상준(익정부2) 박선영(2)
박순화(2) 박영주(2) 박영호(2) 박영희(2)
박윤미(2) 박인자(2) 박일현(2) 박종성(안양2)
박지숙(2) 박지훈/정선희(2) 박태진(2)
박혜정(2) 박희정(2) 방계영(2) 방상호(2)
배경미(2) 배준숙/김신근(2) 서동범(2)
서미란(2) 서영란(2) 석지은(1) 석창록(2)
성경희(2) 송기영(2) 송유재(2) 송정석(2)
신동혁(2) 신영길(2) 심우진(2) 심지은(2)
안병훈(2) 안성진(2) 안혜정(1) 양일섭(2)
오병철(2) 오상만(2) 오상분(2) 오성곤(2)
오용석(2) 웅미경(2) 윤경자(2) 이건수(2)
이금주(2) 이동민(2) 이명옥(1) 이명진(2)
이명철(2) 이미지(2) 이민숙(2) 이민정(2)
이상일(2) 이상조(2) 이선미(1) 이성직(2)
이승균(2) 이수경(2) 이양재(2) 이영근(2)
이영환(2) 이외선(2) 이윤상(2) 이은주(2)
이재원(2) 이재임/정윤택(2) 이정우(3)
이종빈(2) 이종태(2) 이지영(2) 이지원(2)
이진훈(2) 이형영(2) 이호성(2) 임경민(2)
임난숙(2) 임동상(2) 임옥자(2) 임정순(2)
장관용(2) 장길성(2) 장치복(2) 장철성(2)
전미희(2) 전민우(2) 전소연(2) 전수익(2)
전현규(2) 전현민(2) 정규성(2) 정미영(2)
정봉열(2) 정석환(2) 정성훈(2) 정수연(2)
정수익(2) 정수화(2) 정승은(2) 정인기(2)
정창교(1) 정창용(2) 정태영(2) 정현주(2)
조근제(2) 조기권(2) 조선행(2) 조성숙(2)
조여숙(2) 조재선(2) 조진영(2) 조화기(2)
지형근(2) 천성현(2) 최강석(1) 최경환(2)
최명선(2) 최순희(2) 최유미(2) 최준민(2)
최준수(2) 최태도(2) 최효순(2) 추정일(2)

태효원(2) 표창호(1) 하정희(2) 한경미(1)
한성진(2) 한영주(1) 한혜숙(2) 함정혜(2)
함형덕(2) 허옥희(2) 홍관선(2) 홍대식(2)
홍성금(2) 황경희(2) 황백화(2) 황연희(2)
황정일(2) 황해국(2)

이상 10,000원

김병석(2) 현영돈(2) **이상 15,000원**

강만희(2) 강순화(2) 강영철(2) 김민주(2)
김수현(2) 김승태(2) 김영자(2) 김용신(2)
김인숙(2) 김학준(2) 김혜은(2) 김훈(2)
문장렬(2) 박지웅/유정영(1) 백봉현(2)
백지웅(2) 변상순(2) 서성민(2) 신광재(2)
심경애(2) 안현국/하미경(2) 양숙(2) 양홍대(2)
이주연(2) 오정연(2) 유광주(2) 이광범(1)
이남숙(2) 이미경A(2) 이상권(2) 이상규(2)
이서중(2) 이선용(2) 이상재(2) 이숙재(1)
이정림(2) 이주형(2) 이희재(2)
인스월드닷컴(1) 임원기(2) 정석명(1)
조윤식(2) 최경희(2) 최두홍(2)

이상 20,000원

강재철(2) 김계영(2) 김기형(2) 김은경(1)
민유숙(2) 민정범(2) 박상우A(2) 박용길(2)
성숙경(2) 신화용(2) 오상은(2) 오청근(2)
윤경자(2) 이관희(2) 이상길(2) 이선희(2)
이희달(2) 임용재(2) 장혜실(2) 정병배(2)
최종락(2) 홍성관(2)

이상 30,000원

박종성(2) **이상 35,000원**

고명지(2) 서판임(2) **이상 40,000원**

김은영(2) 김은주(2) 김현수(2) 김홍현(2)
민택산업/남기백(2) 박문영(2)

김은영(2) 김은주(2) 김의규/구자명(3)
 김현수(2) 김홍현(2) 민택산업/남기백(2)
 박문영(2) RTX스포츠(2) 엄혜령(2) 오명희(2)
 이정숙(2) 이종우(2) 최해자(2)

이상 5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힐로피아/김윤제(2) 강무진(2) 구태연(2)
 김윤희(2) 노희정(2) 박지연(2) 안성환(2)
 어재형/신지영(2) 이승수(2) 이영숙(2)
 장우형 부이사장(2)

이상 100,000원

채진석 이사(2) **이상 150,000원**

명지춘혜병원 교회(2) **이상 900,000원**

〈휠체어날개달기〉

조성우(2) **이상 5,000원**

고은미(2) 고은순(2) 권은희(2) 김계호(2)
 김동현/김승기(2) 김명석(2) 김서주(2)
 김소하(2) 김순영(2) 김순이(2) 김영숙(2)
 김용환(2) 김이태(2) 김정애(1) 김정자(2)
 김정태(2) 김진모(2) 김창복(2) 김태윤(2)
 김현숙(노원)(2) 김혜숙(2) 남향숙(2)
 민혜영(2) 박만수(2) 박미애(2) 박수경(2)
 박신용(2) 박신자(2) 박옥자(2) 백마강(2)
 백순정(2) 서정숙(2) 서판임(2) 손기현(1)
 신승엽(2) 안종필(2) 안지민(2) 안지우(2)
 양노식(2) 유은수(2) 윤민정(2) 이가영(2)
 이광호(1) 이상분(2) 이영분(2) 이은영(2)
 이은희(2) 이자영(2) 이장욱(2) 이재숙(2)
 이주연(1) 이지수(2) 이진수(2) 이혜령(2)
 이혜숙(2) 이현경(2) 이형재(2) 이혜선(2)
 이희승/김향련(2) 임연해(2) 임찬예(2)
 임채영(2) 임현주(2) 장궁자(2) 장은술(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석(2) 장화순(2)
 전도삼(2) 전영희(2) 전옥순(2) 전해경(2)
 정금숙(2) 정나원(2) 정안나(2) 정애리(2)
 정영순(2) 정우담/정원균(2) 정재갑(2)
 정재호(2) 정재희/주희(2) 정현목(2)
 조선행/김은하(2) 조용환(2) 조혜숙(2)
 최광원(2) 최옥희(2) 최유경(2) 최윤지(1)
 최진숙(2) 추경은(2) 한정민(1) 한충길(2)
 한혜영(2) 허명희(2) 홍경숙(2) 홍상문(2)

이상 10,000원

강용희(2) 강인숙(2) 김경숙(2) 김덕길(2)

김일생(2) 김진형(2) 김철상/이공이(2)
 김효생(2) 박정경(2) 오문영(2) 이상희(2)
 이연우/박정현(2) 장연우(2) 장지분(2)
 장혜실(2) 장혜연(2) 전승완(2) 정경호(2)
 정연희(2) 조민숙(2) 조수현(2) 조승호(2)
 최대우(2) 최명숙(2) 한광희(2)

이상 20,000원

(주)송지(2) 김옥수(2) 김옥주(2)
 이건우/박정현(2) 이태자(2) 최진경(2)

이상 30,000원

송경자(2) **이상 40,000원**

(주)서버존(2) 강옥순(2) 김혜명(2) 박봉희(2)
 이승훈(2) 장영순(2) 최정희(2)

이상 50,000원

박형상(2) **이상 100,000원**

변천섭(2) **이상 200,000원**

특별후원 : 김경미 200,000원,
 김일생(아들 결혼기념) 200,000원

〈한벗동지〉

고현우(2) 공아영(2) 광희수(2) 기효순(2)
 김계자(2) 김인경(2) 김재열(2) 류민경(2)
 맹덕섭(2) 문소현(2) 박미현(2) 박지숙(2)
 서정민(2) 송효림(2) 심상우(2) 양윤희(2)
 양인희(2) 여희숙(2) 오현숙(2) 우지영(2)
 육순우(2) 윤미영(2) 임정혜(1) 정민영(2)
 정선희(2) 정정임(2) 최은미(2) 판윤경(2)
 한경희(2)

이상 5,000원

강현(2) 광영현/장형기(2) 구미옥(1) 구성모(2)
 권오준(2) 김기래(2) 김면봉(2) 김명희(2)
 김미진(2) 김미애(2) 김병준(2) 김상수(2)
 김선옥(2) 김세연(2) 김연주(1) 김용미(2)
 김우주(2) 김인순(2) 김정석(2) 김혜정(2)
 남성현(2) 노신규(2) 류재남(2) 박건우(2)
 박경희(2) 박리라(2) 박상현(2) 박용우(2)
 박일현(2) 박장훈(2) 박정숙(2) 박정신(2)
 박정일(1) 변기정(2) 변아름(1) 서동연(2)
 서민향(2) 서정민(상암)(2) 서희주(1)
 신동연(2) 안국희(2) 안영미(2) 양용준(2)
 양정현(2) 양현태(2) 여일규(2) 우기후(2)

우춘자(2) 이성림(2) 이소정(2) 이송순(2)
 이영순(2) 이용식(2) 이종욱(2) 이혜순(2)
 이희권(2) 이희숙(동지1)
 인보광/박수빈/박혜빈(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장순주(2) 장유나(2) 장철만(2)
 전에스더(2) 정다미/김재훈(2) 정영석(동지2)
 정재영(2) 정진하(2) 정향남(2) 조수연(2)
 조인규(2) 채순옥(2) 채영심(2) 최은미(2)
 홍윤재(2) 황진숙(2)

이상 10,000원

강희정(2) 김경란(2) 김성우(2) 김정애(1)
 김희량(2) 박민희(2) 박승환(2) 백진선(2)
 송선미(2) 이선우/김연희(2) 이정림(2)
 이지영(2) 정진주(2) 하정운(2) 한재형(2)
 함종수/한정옥(2)

이상 20,000원

곽형우(2) 권현정/김성철/김주영(2) 김계엽(2)
 김윤영(동지1) 성낙일(2) 오범균(1) 이웅기(1)
 이재용(2) 임해숙(2) 정은영(2) 최갑석(2)

이상 30,000원

김간란(2) 윤미선(2) 조항미(2) 홍영미(2)

이상 50,000원

주지연(1) **이상 100,000원**

하대주(2) **이상 200,000원**



〈한벗동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박현민(2) **이상 5,000원**

구인회(2) 김규백(2) 김선식(2) 김왕수(2)
 김진아(2) 안성윤(2) 이광석(2) 이수희(2)
 이종현(2) 이탄희(2) 임건태(2) 전경락(2)
 정형선(2) 최봉계(2) 홍원표(2)

이상 10,000원

강완정(2) 강진구(2) 박성용(1) 박영숙(2)

손병산(2) 이강우(2) **이상 20,000원**김경준(2) 김기수(2) 김선광(2) 이태희(2)
이상 30,000원김혜원(2) 유경환(2) **이상 50,000원**최수진(2) **이상 70,000원**강은모(2) 오유인(2) 이준구(2) 차성안(2)
이상 100,000원**<주간보호센터>**김운수(2) 조승현(2) **이상 5,000원**김미영/허규민(2) 김세훈(2) 김인기(2)
박종미(2) 박채련(2) 양영춘(2) 오선주(2)
윤준호(2) 이경주(1)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2) 이호식(2) 정미숙/박성수(2)
차경옥(2) **이상 10,000원**김민정(2) **이상 15,000원**김정훈(2) 김종범(1) 신호숙(2) 심진섭(2)
엄해경/김근일(2) **이상 20,000원**신두철(2) 안소영(2) 이원재(2) 한가현(3)
이상 30,000원신현관(2) 장안태(2) 홍지웅(2)
이상 50,000원김현진(2) **이상 100,000원****<미국 교민 후원금(달러, 칼린)>**

특히 성탄 축하 기부금과 굳이 '공주님
의 치마' 책값을 보내주시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김애자 선생님, 텍사스 한인여성회 기부금
교섭해주어 고맙습니다. ()안 개월 수

<2021년 11-12월> ()은 개월

• 달러지역(\$1,940)
김윤원 \$200(2) 스텔라 \$150(2)
장덕환 \$50(2) 케니 김 \$30(2)
지나 \$20(2)

특별후원 서상해 \$40.

북텍사스 한인여성회 \$1,000

• 킬리지역(\$830)

고향미, 김은희, 김혜중, 박순화, 백수산나,
송영희, 이사벨라, 이영란, 이정숙,
조마리나, 조용순, 줄리, 허양옥.

- 이상 각 \$20(2)

• 신규가입 : 베로니카 \$20

• 성탄특별기부(합 \$130)

고향미 \$10 김혜중 \$10 백수산나 \$10
이사벨라 \$10 이정숙 \$20 조마리나 \$10
조용순 \$30 최정임 \$20 허양옥 \$10

• '공주님의 치마' 책값(합 \$60)

이사벨라 \$10 이정숙 \$20 조용순 \$10
최정임 \$20

재정보고 내역은

한빛등지와 주간보호시설의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재단사무국의 재정현황입니다.

통권 제 286호

발행일:2022년 1월 10일

발행인:최명숙

제작:한빛재단

주소:(우04319)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TEL:(02)393-0661(대)

MOBILE:010-6747-0661

FAX:(02)712-6093

이메일: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www.hanbeot.org

한빛재단 임원

법인이사:최명숙(이사장) 장우형(부이사장)

김윤원 김정희 김혜명 윤승모 채진석

유형진 유시영

법인감사:강만희 김훈

운영위원회:백진양(회장) 권진동 김자희

김현숙 엄해경 이경화

부서별 연락처

한빛등지:02)336-3100

주간보호:02)713-5050

휠체어기증본부:02)713-1005

한빛투어:02)702-1515

21년 10 ~ 11 월 재 정 보 고 (2개월 합산) (단위:원)

수입			지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후원금	재단	16,084,000	인건비	급여	11,244,940
	등지/주간	7,005,000		사회보험료	2,026,586
	날개달기	5,010,000		후생비	69,800
	방정환기금	1,603,000	업무추진비	운영비	392,000
	미안마의연금	450,000		직책보조비	610,500
사업수입	휠체어대여	100,000	업무추진비	건물관리	1,323,400
임대수입	관리비수입	1,828,000		소식지간행	1,055,000
	중계기임대	7,854,000		지급수수료	2,119,032
기타	잡수입	185,000	채입상환	원금 등	4,209,120
특별기부 1억원 별도			공요금	통신비	1,529,042
			공과금	세금과공과	938,580
			차량비	차량비	110,000
			사업비	해외사업	7,106,000
				국내사업	1,040,000
			전출금	등지	5,725,000
				주간보호	620,000
총계		40,119,000	총계		40,119,000



그림 : 백남호

빌어먹을 망나니들이다. 바지가랑이를 몽땅 찢어버렸다.

쥘 · 르나르의 자연이야기 '박물지' (1972년 을유문고 손석린 역)에서 옮김
J.르나르(1864~1910년/프랑스)

사 람 세 상

「공주님의 치마」를 읽고



책을 읽으며 이번처럼 통증이 가슴으로 파고 든 건 처음이었다.

저들의 생이 나의 분화한 의식을 강타하며 눈물샘을 찢었다.

공주가 된 화가, 장애의 몸이지만 해맑은 웃음과 안온한 미소 한 줄 남기고 떠나고, 불꽃으로 타오르다 의연히 사라진 청년, 천진한 어린이로 돌아간 분, 장엄한 시가 되어 버린 시인 그리고 어머니를 부르는 생강손의 하모니카 소리…….

산다는 건 어떤 이에게는 살아지는 것이지만 누구는 칼로 상처를 베이는 아픔과 불에 달군 바늘로 찌르는 통증을 견뎌야 하는 질곡이구나!

그러나 저들의 생이 끝나는 장면은 모진 장애를 딛고, ‘그래도 나는 아름다웠노라’ 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저들 앞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웠다.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해주었다.

‘아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순간 내 고단한 이민생활의 버거움도 나비처럼 사르르 떠올라 가벼워졌다.

이 책을 펴낸 ‘한벗’은 장애인 뒤에 숨어 있다.

오랜 세월 장애인의 심부름꾼이 된 봉사자와 기부회원들, 이들의 이야기 또한 촛불처럼 그윽하고 따스했을 텐데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하리라. 저들은 그들이 바란 대로 소금으로 녹아 없어졌으리니!

- 텍사스 킬린에서 한벗회원 최정임

「공주님의 치마」를 보내드립니다

다른 분에게 선물하고 싶은 회원(5권까지), 또 회원이 아니어도 원하는 분에게 무료로 드립니다.

신청 02)393-0661